



### 토굴문화 이대로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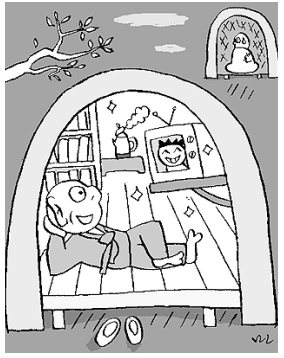
토굴은 말 그대로 흙으로 굴처럼 열기 쉽기 감박하게 지은 수행자의 외딴 거처이다. 이를 초기경에서는 꾸미(kuti, 초막)라 부르며 지금도 남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토굴이라 불리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부처님께서는 "쫄다어, 여기 나무 밑에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쫄다어, 방입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중부 제8경 등)"라고 하셨으니 외딴 토굴생활은 목숨을 내놓고 장부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간곡히 권장하신 삶의 방식이라 하겠다.

토굴이 개인 골택으로 전락해버린 적극의 원인은 물론 출가자들의 기강 해이가 그 근본원인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째는 개인공간이 보장되지 않고 게다가 앉는 시간만 점점 늘리는 극단적인 선방풍토를 들 수 있다. 선방 생활이 극단적으로 힘들수록 해제 때에 쉬는 공간이 더욱 절실해지고 그럴수록 토굴생활은 극단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본·말사 가릴 것 없는 사찰 생활이 극단적으로 힘들수록 해제 때에 쉬는 공간이 더욱 절실해지고 그럴수록 토굴생활은 극단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토굴생활은 부처님이 장려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에게나 권장하신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의 많은 곳에서 "성스러운 계목(戒目)을 구족하고, 성스러운 감각기능(根)의 단속을 구족하고, 마음행감과 알아차림(正念)을 구족하여 개인공간·노후보장 확립되어야"

### 사유재산·호화별장으로 변질 개인공간·노후보장 확립되어야

그러므로 출가의 신분보장과 노후보장 차원에서 본 사별로 실버타운 형태의 처소를 건립하여 일단 재적 승려가 되면 누구에게나 배분해서 일생동안 개인사물을 보관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토굴은 진실로 발심한 자가 두문불출하고 일대사만을 궁구하는 생활을 즐기는 골택이 되어버렸으며, 토굴은 개인의 재산으로 치부되고 있고 심지어는 때때로 들러서 피로를 푸는 온갖 험담장비를 구비한 호화별장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출가의 신분보장과 노후보장 차원에서 본 사별로 실버타운 형태의 처소를 건립하여 일단 재적 승려가 되면 누구에게나 배분해서 일생동안 개인사물을 보관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토굴은 진실로 발심한 자가 두문불출하고 일대사만을 궁구하는 생활을 즐기는 골택이 되어버렸으며, 토굴은 개인의 재산으로 치부되고 있고 심지어는 때때로 들러서 피로를 푸는 온갖 험담장비를 구비한 호화별장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각목(초기불전연구소 지도부서)

## 종조 도의 국사 다례제 봉행

조계종, 6월19일 조계사에서 "종단 정체성 확립 계기 될 것"

한국 선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도의 국사. 성은 왕(王),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 통일신라 말인 784년 당나라로 건너가 개원사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선사에게 불법을 이어받은 뒤 귀국, 신라에 선종(남종)의 씨를 뿌렸다.

당시 서라벌 중심의 왕권불교와 대립하며 진보적인 선사상을 전파했던 도의 국사는 말년에 양양 진전사로 들어가 은둔했다. 이후 도의 국사의 사상은 열거화상-보조체징에게 전해지고, 체징은 9산선종 중의 하나인 가지선파를 열며 우리나라 선종의 시작을 일컫게 된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사상적 일대 전환을 일으킨 대선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국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종단 정체성 강화를 위해 종조 도의 국사 다례제를 6월 19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6월 1일 "종단 정체성과 역사성 강화, 법통 확장 등을 위해 도의 국사 기일인 6월 19일 종조 다례제를 봉행한다"며 "장소는 서울 조계사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정 법전 스님 및 종단 원로스님 등이 참석 예정인 다례제는 육법공양, 천수대배주, 거불, 권공, 축원, 행장소개, 법어, 거묵, 청사, 헌화, 다계, 헌화, 권공가사, 발원문 순으로 진행된다.

6월 19일(음력 5월 2일)은 1941년 4월 23일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태고사법' 제9장 법식(法式) 제81조 '향례법회 및 기일'에 나오는 "도의국사 기일은 5월 2일"에 따른 것이다. 다례제와 관련 총무부는 "간화선 중심의 승풍을 진작하고 역대 선장(禪匠)들에 대한 추모 및 존송을 통해 종단 위계와 위의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 선홍사는 지난 4월 27일 양양 진전사에서 진전사 복원 기공식을 갖고 복원에 들어갔다.



양양 석남사에 있는 도의 국사 진영

### 결산안 승인 등 처리 못해 파행

#### 동국대 이사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99차 이사회가 5월 28일 동국대 교무위원회에서 열렸지만 2003년도 결산안 승인 건을 놓고 이사회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결국 이날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던 2003학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과 신규인원(스님 및 재가 이사 선인, 필동 중대병원 매입 승인 등)의 건은 상정조차 못하고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의 정점은 박도근 재단 감사의 2003학년도 결산 감사보고내용 가운데 동국의료원

약품납품업체 수의계약건과 필동병원 매입 계약금 130억 과다지출, 장운 스님은 "중앙대 필동부속병원 매입과정에서 계약금이 통상적인 계약관행을 깨고 130억 원이나 지급된 경위를 밝히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홍기삼 총장은 "2003년도 회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학교의 이익을 위해 급하게 처리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은석 초등학교 학적 개정, 교원 승진 등 인사, 경주병원 의료장비리스 승인, 2004학년도 사학진흥기금 용자에 따른 가세승인 등의 건을 처리했다.

### 조계종 총무원 부장급 인사

총무 무관 스님 사회 지원 스님 호법 진원 스님 문화 성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6월 3일 교역직 인사를 단행해 총무부장에 무관 스님(대구 법계사 주지), 사회부장에 지원 스님(부산 문수사 주지), 호법부장에 진원 스님(부산 내소사 주지), 문화부장에 성정 스님(여주 보문사 주지), 호법공장에 자공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전 총무부장 성관 스님과 전 호법부장 종열 스님을 정책특별보에, 전 사회부장 미산 스님을 국제특별보에 임명했다.

무관 스님은 1964년 사미계, 72년 구족계를 수지한 뒤 83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지원 스님



진원 스님



성정 스님

진원 스님은 1980년 사미계, 8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2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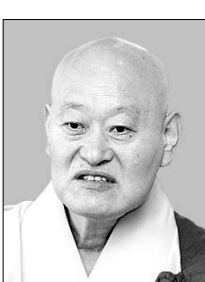
1967년 사미계, 74년 구족계를 받은 성정 스님은 90년 일본 용곡대학원을 수료한 뒤 9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장 스님은 "소임을 맡기는 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종도들의 뜻이자 부름"이라며 원칙을 기준으로 원용화합을 해 주길 당부했다.

### "원칙 가지고 원용화합 노력"

#### 신임 총무부장 무관 스님

"종단 위계질서와 종단 체제 확립에 일조하기 위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원장 스님의 맡겨준 원칙 있는 원용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 총무부장에 임명된 무관 스님(사진)은 하인거 결체를 위해 구례 화엄사 선방에 방부들인 첫째 날 서우에 왔다. 교육문화회관 상량문을 썼던 무관 스님은 당시 법장 스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인연이 돼 제도권 안에서 종단 위상 정립과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발돋움해 올라왔다는 것이다.

무관 스님은 행사교육원 운영위원,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장, 계단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이 말해 주듯 학자다. 이와 관련 스님은 최근 조계사에서 열렸던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언급하며 종단 정체성에 맞는 수행성 정립에도 뜻을 들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총무행정 경험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종정 법전 스님이 합천 해인사 주지를 맡고 있을 때 교무소임을 봤었습니다. 또 8대와 10대 중앙총회의원을 하면서 중앙총무기관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스님은 총무행정 실무 역량을 맡고 있는 국장 스님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부장스님들끼리 화합하는데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지족(小欲知足)'을 늘 마음에 새긴다는 스님은 "자기 절제가 곧 수행"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총무 행정을 펼칠 뜻을 내비쳤다.

남동우 기자

### "신도활동 강화해야 포교성과"

#### 조계종 포교정책 연찬회서 지적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신도회·신도단체의 역량 진단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행과 포교, 출가자와 재가자 등 양 조건의 상호보완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부장은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2,200여개의 사찰 중 신도회가 구성된 곳은 25%에 불과하고,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곳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각 신도

회의 활동 등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정책생산력 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 참여구조 확대 및 민주적 절차 확립, 자원의 관리 및 개발·육성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총무원 이민우 기획계장 역시 "문화교양강좌, 일대일 대화·토론행식 등 시대의 흐름과 일반인 및 신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차 포교정책연찬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김은경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언론에서 극찬한 화제의 책

# 여인들 간의 만남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형식에 관계없이 잡다한 얘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삶에 있어 배가 궁급해 하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스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다. 나 자신을 포함 불교에 다가가려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얘기가 스님의 말 속에서 허다히 찾아진다. - 신경림 -

만남을 가지면서 배배 즐거웠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신경림 -

KBS 9시 뉴스방영! · MBC·YTN 뉴스 방영!  
스님과 시인의 특별한 만남 - 동아일보  
수행과 문화의 고수(高手)가 만나 사랑·욕망 등 7가지 주제를 묻고 답한다. - 조선일보  
급한 마음 붙들고 천천히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반짝거리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 - 중앙일보  
시와 선이 만나는 곳엔 서로 구분지을 수 없는 깨달음의 웃음 한바탕 - 한겨레  
승속(僧俗)의 경계를 넘은 '이름다운 교감' - 한국일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이들에게 가질 수 있는 통찰과 여유가 돋보인다. - 문화일보  
세상사와 인생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 또한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 경향신문  
지난 겨울 두 사람이 백담사에서 열 네 차례 만나 '내공'을 겨루다. - 한국경제

신국판 변형 | 280면 | 값 9,800원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 Tel. 02-2011-1880-1 | Fax. 02-720-6019 | 아름다운 인연은 조계종 출판사의 자회사입니다.